



2면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공수처, 내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음 5월 3일) 제25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김주영 부위원장, 김진표, 이광재 본부장을 비롯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전북·전남·광주 현역 의원들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방문판매업소 방역수칙 강화 송 지사 "가급적 행사자제를"

도내 총 903곳... 불법 미신고 업체 미준수엔 엄정 대응 조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코로나19 긴급 방역회의에서 방문판매업소인 서울 리치웨이 발 확진자가 대전을 거쳐 전북 22번 환자와 동선이 일부 겹침에 따라 도내 총 903개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이 주된 영업수단이므로 감염병에 취약,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뺏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를 양산 소비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송하진 지사는 관할 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각종 행사를 자제, 직접판매협회, 다단계공제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을 업계 및 회원사에 지속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불법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에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이 인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과 연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와 경찰 수사요청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군 이·통장과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도내 22번 환자 동선 추적 결과 식당에서 대면 확진자와 5분 정도 접촉한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물 섭취 외 마스크 착용,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 줄 것과 비말제거를 낮추는 에어컨 사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주 도내 신규 환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여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다"며 "방문판매업소 운영자와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성기자

## 송하진 지사 "공공의대법 조속 추진"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위 호남권 간담회 전북 개최  
코로나·한국판 뉴딜 연계 지역 주요현안 논의의 장  
탄소기술원 진흥원 지정·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목청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하 코로나19 국난극복위) 호남권 간담회가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새만금을 한국판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이낙연 위원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호남권 3개 시·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그리고 전북·전남·광주 현역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및 한국판 뉴딜 관련 현안사항을 주요논의안건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신속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남원 서남대 폐교로 발생한 의대 정원을 활용에 대학원을 설립할

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글로벌 빅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수산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 등이다. 아울러 송하진 도지사는 도정 현안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참석자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을 방문 탄소 섬유 연구개발 성과와 제조공정 등 현장을 살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난 10여년간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서 최적의 기관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용역을 진행, 내년 상반기 중 운영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일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지역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3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6일 영남권 19일 강원권에 이어 이날 전북에서 호남권 간담회를 열었다. /유호성기자

###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 "7월 중 2차 농산물 꾸러미 배달"

도교육청, 학생 21만8000여명... 1인 32,000원 상당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학교 급식비가 농산물 꾸러미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7월 중에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21만8000여명(1인 32,000원 상당)에게 순차적으로 2차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학생들과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5월 70여원을 들여 1차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교육청 32억원, 전북도 18억원 및 시군 20억원 등 총 70억원이다. 지난 1차 농산물 꾸러미는 쌀, 잡곡, 김, 채소, 과일 등이 담겼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간편식이 없어 다소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각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2차 농산물 꾸러미 구성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학교 급식비가 사용된다"며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농산물 꾸러미는 신선함을 위해 보냉가방에 담아 오는 7월 중 각 가정에 배송된다. 특히 택배로 받는 농산물 꾸러미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안내문도 함께 넣어 보낼 예정이다. /정은성기자

2019 문화재청 선정 우수야행

2020 금마저 백제왕궁을 누리다.

# 익산 문화재 야행

1차야행 2020. 7. 10. 금 - 7. 11. 토  
18:00~23:00 백제왕궁(왕궁리 유적) 일원

2차야행 2020. 9. 25. 금 - 9. 26. 토

- \* 셔틀버스 및 순환버스 운행 : 14시 - 24시(홈페이지 참조)
- \* 임시주차장 운영(서동공원, 미륵사지, 공설운동장)

문화재청 | 전라북도 | 익산시

문의 : 063-859-5793 | ikсан\_heritage | www.iksan-night.kr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